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옳은
사람됨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서는 인생에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하는 인생은 없음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진짜가 있어서

신 윤 식

세상은 온통 나쁜 것으로 가득하지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눈에 띄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이요

모름지기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채 살아가니
그것은 또한 서러움이라.

가짜가 가짜임을 알고
진짜를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 길이요
그것은 내게 진짜가 자리하는 길이라

내 속에 진짜가 있어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게 되고
선을 선으로 알게 되니
진짜가 내게 자리하는 기쁨으로
내 속이 채워지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2.13

발행호수 제19권 7호

예 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하기만 했을 뿐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영생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생은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는 그 청년에게는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 영생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영생이란 복의 가치가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는 말일 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 소유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지금도 부자 되는 복을 마음에 두고 있고 가난은 복을 받지 못한 저주의 현실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말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원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착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엉망입니다. 온 몸이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짓눌린 무거운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자신에 대해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채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많다 적다 따지며 불평을 하고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큼니까? 천국의 가치

주일오전설교
마 19:27-30

보상의 문제

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큰 가치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 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7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던 일과 가족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일과 가족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되고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는 말씀 뒤에 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그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자신의 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27절 다음의 내용과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연결하여 다른 방향에서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으니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보상이 무엇이였을까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으니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천국에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단한 사람인 자신들에게 천국에서 따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으로 말하면서 또

다시 보상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따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됩니다. 즉 따로 보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이 베드로에게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8절)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베드로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천국에서 특별히 주어질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한 바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보상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는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세상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즉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 참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할 권세에 참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가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다고 하면서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존귀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무시한 자의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청년 역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복의 존귀함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은 때는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는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의 가치에 대해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세상에 집착 한 채 베드로처럼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며 보상이나 기대하는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 들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며 불쌍함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기존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세상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여기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곧 참된 이스라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님이 새로운 세상이 백성들로 인해서 증거됩니다.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심판이 신자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한 신자 됨의 가치이며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존 세상에서의 삶의 전부입니다. 생존의 의미를

모두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생존의 의미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에 담겨 있는 생명이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주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열렸을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짐을 뜻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으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을 대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보다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존귀함은 생명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드러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베드로는 겉으로 본다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영생의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자기 행위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그 속성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 것을 토대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나중 된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안되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마음을 두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임을 알게 됩니다. 한 것이 없이 받은 놀라운 보상입니다. 이 보상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사 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를 추월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깊은 탄식을 하는 내용을 롬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서 의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라면 삶과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과 혼란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는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이었다면 이 같은 탄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의인이었고, 자신을 구원하는 것도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죄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사망에 이르는 것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탄식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절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점은 바로 이러한 탄식과 마음 깊은 절망감에서 나오는 절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도 실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아픔도, 절망도, 탄식도, 외침도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 밖에 없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행세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선을 이루기 위한 열심일 뿐인데, 문제는 그 어떤 열심으로든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선을 향한 의지가 있다 할 지라도 우리 내부에 또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악을 극복하며 선을 실천하고 이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자각하며 이렇게 말

주일오우설교
롬 8:1-2

성령과
해방

(성령 5강 130일 설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2절)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인데 문제는 해방된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해방감, 즉 해방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감은 갇혀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갇혀 있는 자로 여기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해방의 기쁨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함께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실재적인 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리적 의미의 가르침으로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요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하느냐” 라고 반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한 자유 또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항상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완벽한 신앙의 모범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실재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 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쉬지 않고 솟아나는 죄를 보면 우리는 분명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 값인 사망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 법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모범생이 될 것을 요구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만 여기는 것은 부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는 모두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 죄인이라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써, 살아있는 신자답게 선을 행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매일 같이 우리에게서 벗어지는 성령이 역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은혜는 일회적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자각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면서 자신이 곧 사망에 갇힌 자임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는 선포가 기쁨의 소식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성령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 효력 아래서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며 이 법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와 상관없이 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필요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망에 갇힌 자기 현실을 봐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모르게 되면 신자로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 아닌 것 같고, 성경 보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도 해야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5,6)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매인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율법과 상관없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죄를 이겨야 하고 의를 이루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에게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실천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나아진 것 같고 타인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율법적 요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신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자유함을 누리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에게 죄는 여전하고 따라서 사망에 갇힌 자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취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 자로 여김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사망과 상관이 없이 생명 안에 거하는 해방된 자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여 지었고 온통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산에서 가져온 나무가 재료였고 금으로 장식하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예전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초라

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삼하 7: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궤는 불품없는 휘장으로 가려놓은 곳에 모셔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는 자신이 거하는 궁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은 작고 허름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생각을 책망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크고 화려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에서 가져온 불품없는 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서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3절)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의 눈에는 지금의 성전은 그야말로 보잘 것 없이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초라함이나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매어 있습니다. 예배당은 크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일설교

막 2:1-9

나중 영광

(1장 2.2일 설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외모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은 외형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8절)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영광은 크고 화려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전을 장식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 될 수 없고 보배도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형이 화려하면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신자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착각이고, 예배당을 잘 지어야 영광이 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착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영광은 모든 나라의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고 말합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뭐고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 영광은 보배로 오신 주께서 성전에 함께 하심으로 채워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인한 가시적인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외적인 화려함과 부요함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크고 화려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반면에 들의 백합화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보잘 것 없는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합화에게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가 함께 했고, 그 은혜가 백합화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에게 함께 한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그분을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힘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자 된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영광은 세상의 것이 조건이 아니라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의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신자의 심령에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장
교 독 : 70(사42)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46장
성 경 : 마 19:27-30
말 씬 : 보상의 문제(12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 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11장
기 도 : 장동현 집사
찬 송 : 453장
성 경 : 롬 8:22-27
말 씬 : 성령의 탄식(성령 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8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1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 권사투표 있습니다. 등록세례교인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오후 성경공부 있습니다.
3. 수련회 회비를 매월 적립하실 분은 장영대 집사님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이영민 장로 오후 박영선 집사

성경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②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병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의사가 와서 특효약을 주고 갔다고 하자.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약을 포장한 상자를 보면서 상자의 재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너무 저급한 재질의 상자도 포장을 했다는 것에 일단 불평을 한다. 그리고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세밀히 살펴보고, 유효기간도 꼼꼼하게 챙기고, 다음에는 약을 가져온 의사의 나이와 그가 어느 의과대학을 나왔는지 알아본 다음에 비로소 약을 먹는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렸음을 알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병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주는 약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 없이 당장 그 약을 먹는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성경이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중한 병에 걸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 즉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아는 신자는 자신을 살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지 성경을 분석하고 파헤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꿰뚫어 잘 아는 성경의 대가가 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개미와 베짚이 라는 이야기를 알 것이다.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미처럼 나중을 위해 지금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취지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지 개미와 베짚이가 어떤 곤충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가? 당연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미와 베짚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미와 베짚이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은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파헤치면서 거기에 적당한 명칭을 붙여 이런 저런 행사를 잔뜩 만들어 내며 자기 밥벌이로 이용하는 가짜들이 득실거릴 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신자다. 성경이 분명 진리를 말하고 있고,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살리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문제를 내게 전하는 것이 성경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모른 사람이다. 아무리 성경을 예리하고 자세히 분석하고 파헤쳐서 수많은 신학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는 성경을 모른 사람이다.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회칠한 바리새인일 뿐이다. 성경은 분석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점령당해야 할 능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